

한국불교 100년 대표불서 58권

민족사 윤창화 대표 1만여권 가운데 추려

금오 스님 법문집 40년만에 재출간

- 한용운 편 <불교대전>(범어사, 1914)
- 안진호 <석문의법>(만성회, 1935)
- 이윤허 편 <불교사전>(법보원, 1961)
- 이지관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해인총림, 1969)
- 대한불교청년회 편 <우리말 팔만대장경>(법통사, 1963)
- 대한불교조계종 편 <불교성전>(조계종 교회사업위원회, 1972)
-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불교 산술문헌총록>(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 백용성 <귀원정종>(중앙포교당, 1913)
-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불교서관, 1913)
- 이기영 <원효상사-세계관>(원음각, 1967)
-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동화출판공사, 1981)
- 윤호진 <무아윤회론의 연구>(민족사, 1992)
- 안진호 <선편 팔상론>(만성회, 1942)
- 김동화 <불교학개론>(백영사, 1955)
- 김익철 <화엄학개론>(동국대학교출판부, 1960)
- 김동화 <불교교리발달사>(삼영사, 1977)
- 정승식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대원정사, 1996)
- 신소천 <금강반야바라밀경 강의>(사바도원, 1936)
- 김용담 <선가귀감>(선학원, 1971)
- 고형근 <선의 세계>(태학사, 1971)
- 이성철 <선문정로>(해인총림, 1981)
- 이원설 <개척의 미학>(법보신문사, 1991)
- 정성본 <중국 선종의 성립사 연구>(민족사, 1991)
- 권상로 <조선불교약사>(新文館, 1917)
- 이화 <조선불교통사>(新文館, 1918)
- 최남선 <조선불교>(조선불교청년회, 1930)
- 박종홍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서문문고, 1972)
- 박길진 박사 회갑기념논문총 <한국불교사상사>(원광대학교, 1975)
- 안계현 <한국불교사상사 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경서원, 1986)
- 허홍식 <고려불교사 연구>(일조각, 1986)
-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 김혜봉 <친일불교론>(민족사, 1993)
- 김성현 <역사로 읽는 원효>(고려원, 1994)
-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민족사, 1996)
- 고유섭 <조선 탐파의 연구>(유유문화사, 1948)
- 황수영 <한국 불상의 연구>(삼화출판사, 1973)
- 진홍섭 <한국의 불상>(유유문화사, 1948)
- 최완수 <불상 연구>(지식산업사, 1984)
-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대원정사, 1986)
- 강우방 <원융과 조화>(열화당, 1990)
- 황패강 <신라불교설화 연구>(일지사, 1975)
- 김운학 <신라 불교문학 연구>(현암사, 1976)
- 이상보 <한국불교가사전집>(집문당, 1980)
-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시의 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 한용운 <님의 침묵>(회동서관, 1926)
- 이광수 <원효대사>(생활사, 1948)
- 이종익 <사명대사>(통문관, 1957)
- 서경수 <세속의 길 열반의 길>(원음각, 1966)
- 석지현 <선시>(현암사, 1976)
- 법정 <무소유>(범우사, 1976)
- 김성동 <만다라>(한국문학사, 1979)
- 한승원 <이재아제 바라아제>(삼성출판사, 1985)
- 고은 <화엄경>(민음사, 1991)
- 최인호 <길 없는 길>(샘터, 1993)
- 김탄허 역 <신화경합론>(화엄학연구소, 1975)
- 한국불교전서 편찬실 <한국불교전서>(동국대학교출판부, 1979-1989)
-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동국역경원, 1964-2001)

“공자의 <논어> 9장 ‘자한편(子罕篇)’ 22단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나이 40이 돼도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 문구를 접한 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 자신을 질타하는 것 같아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기왕지사 그 분야에 몸담았다면 장인은 명품을, 학자나 저술가는 명저를, 철학·사상가는 인류의 지적 유산을 남겨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로 불교출판에 몸담은 지 30년이 된 윤창화(민족사 대표)씨는 최근 지난 1세기 동안 출판된 불교서적 가운데 ‘한국불교를 움직인 대표적인 책’ 58권을 선정해 그 의미와 가치를 되짚는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윤씨가 출간한 책은 600권이 넘는다. 윤씨는 “어리석지만 돈을 벌고 싶어 만들었던 책들도 있고, 돈과는 무관하게 만든 책들도 있다”며 “하지만 때론 한 권의 책이 교단의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책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세기 동안의 불교서적들을 다시 선별했던 것은 “불교출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삶의 철학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근현대 100년(1901~1999) 동안 출판된 불교서적은 1만 2000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윤씨는 이 가운데 명저, 화제의 책, 베스트셀러, 논쟁서 등을 중심으로 특필할 만한 책을 뽑아 평가와 리뷰를 했다.

“100년 동안 출판된 책 가운데 내용적 가치와 시대적 역할, 그리고 문화사라는 잣대 위에 올려놓고 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객관성을 갖고 판단했지만 그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한 출판인의 짧은 시야를 통해 선정된 책들이지만 이 책들은 그 시대에 학문적·대중적으로 저지 않은 역할을 한 책들입니다.”

윤씨는 주관적이긴 하나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법으로 책들을 선별했다. 시기는 1900~1996년 약 100년 동안 출판된 불교서적으로서 △불교학계나 교단, 승단, 불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 △독창성 있는 연구를 통해 불교 및 불교학의 수준을 향상시킨 책 △학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 책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일정한 역할을 한 책 △새로운 시각과 관점·해석을 시도한 책 △잠시한 주제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 책 △불자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책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한 오늘의 시점이 아닌 그 시대를 기준으로 책을 평가했으며, 저자의 이름이 아닌 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전집, 사전류, 기념논문, 경전 번역서, 자료 모음집 등은 가능한 제외했다.



윤씨는 “선정된 책들은 본디부터 본격적인 해제나, 서평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시대적인 역할과 의미, 그리고 의미 부여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단점, 부족한 점은 가능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책은 글을 쓰는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독자 이 세 사람이 만들어 가는 지적 예술이다. 저자는 책 속에 자신이 탐구한 사유세계와 혼(魂)을 담고, 출판사는 정성들여 그 혼집을 짓고, 독자는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 윤창화씨는 혼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혼집들을 더 유심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윤씨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과 같이 저지 않은 책들이 명멸(明滅)했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여전히 독자의 마음에 남아 있는 책은 드물다”며 “많은 학자와 저술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 윤창화 지음 | 민족사 | 1만8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저자 윤창화는 현재 출판사 민족사 대표이다. 해인사 강원 13회 졸업,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했다. 저자는 책 속에 자신이 탐구한 사유세계와 혼(魂)을 담고, 출판사는 정성들여 그 혼집을 짓고, 독자는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 윤창화씨는 혼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혼집들을 더 유심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윤씨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과 같이 저지 않은 책들이 명멸(明滅)했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여전히 독자의 마음에 남아 있는 책은 드물다”며 “많은 학자와 저술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 윤창화 지음 | 민족사 | 1만8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타계 2주년 이청준 전집 출간

초기 중단편작 모아 ‘병신과 머저리’ ‘매잡이’ 2권

“소설은 언어의 질서를 통해 반성적으로 삶을 인식 해석하고, 창조적으로 사랑하며, 자유롭고 조화로운 새 세계를 꿈꾸는 담화 행위이다.”

한국 소설문학의 큰 산이라 불리며 40년의 세월 동안 <서편제> <눈길> <당신들의 천국> 등 굵직한 작품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던 작가 이청준(1939-2008), 우리 시대의 한과 아픔을 사랑과 화해로 승화하려 한 작가 이청준의 문학을 보전·재조명하고자, 타계 2주년을 기념해 ‘이청준 전집’이 출간됐다.

소설가 이청준은 말과 말의 질서를 통해 권력과 인간의 갈등, 집단과 개인의 불화, 언어와 사회의 갈등 등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많은 작품을 통해 말해왔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준 지성의 정치화, <서편제>가 풀어낸 토속적 정향의 세계까지

이청준의 문학을 우리 삶의 전방위를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전집은 그의 초기 중단편 소설들을 발표순으로 모아 1권 <병신과 머저리>, 2권 <매잡이>으로 펴냈다. 1권에는 12편의 중단편 소설, 2권에는 9편의 소설들이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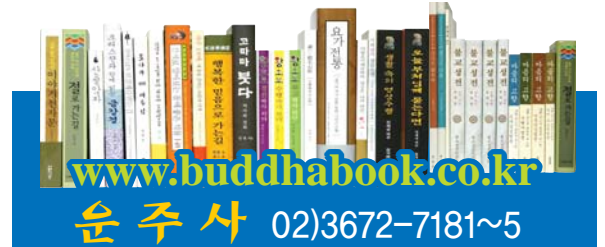
이 소설들은 작가가 연재를 마쳤으나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않은 작품과 미완성작 등을 모두 엮었으며, 각 작품 말미에는 발표 연도를 밝혀 놓았다. 또한 이번 ‘이청준 문학전집’은 새롭게 교정·보완해 해설과 각 작품 텍스트의 변모 과정과 이청준 작품들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글도 함께 실었다. 책은 이청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을 보인다.

병신과 머저리·매잡이 | 이청준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만1000원 · 1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은주사
3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4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5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6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7	젊은 날의 깨달음	해인	클리어마인드
8	미중들의 힘	허달	아시아문
9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건	붓다의 마을
10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법산	은주사

*불서총판 은주사 제공 (02)3672-7181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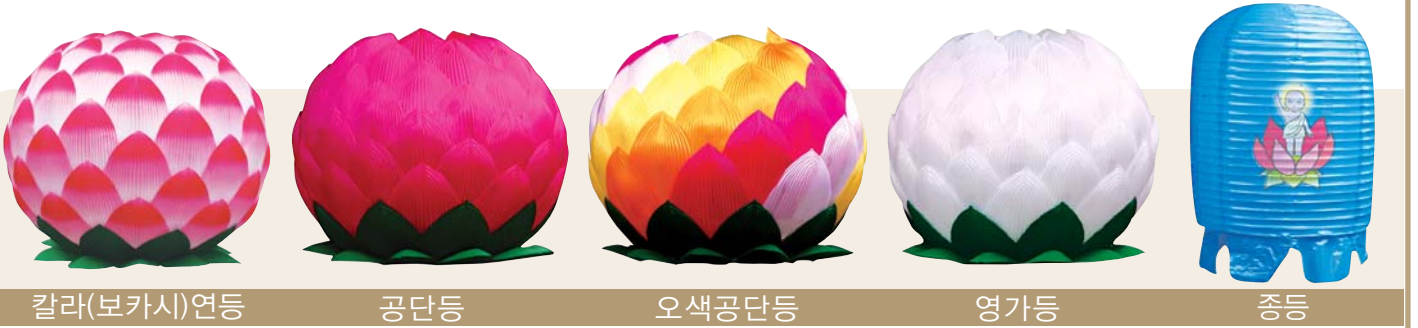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가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